



# 하루에 하나

2026.7.2

JULY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원/달러 환율

1,554.90원 (+5.50원)

KOSPI

8,303.41 (-173.07, -2.04%)

KOSDAQ

929.35(+13.17, +1.44%)

국고채 10년 금리

4.205(+0.114%p)

본 자료는 오늘 발간된 자료의  
요약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각 자료를  
확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hanafn.com

## Global Asset Strategy

자산배분의 창(窓)	토큰 경제 (Tokenomics)로 이어지는 AI 생태계 [이영주]
신용국 전략	인도 증시 단기 체크포인트 [김근아]
해외채권	유가, AI, 그리고 금리 [허성우]

## 기업분석

코스메카코리아	하반기는 더 크다 [박종대]
농심	2Q26 Pre: 원가 부담 가시화 [심은주]
삼양식품	2Q26 Pre: 시장 기대 충족 전망 [심은주]
삼성E&A	2분기 중등 실적은 양호할 전망 [김승준]
롯데렌탈	2Q26 Pre: 인기가 많아요 [안도현]

## 산업분석

은행	금리모멘텀과 실적모멘텀 동반 부각 예상. 비중확대 권고 [최정욱]
엔터테인먼트	말도 안되는 저평가 구간 [이기훈]
호텔	또 한번의 호실적에도 황당한 수준의 저평가 [이기훈]
디지털자산/인터넷	Open USD 출범과 영향, 원화 스테이블코인 예상 [이준호]

## Monthly & Weekly

유통/화장품	2026년 화장품 역대 최대 수출 모멘텀 시현 중 [박종대]
완성차 도매판매 동향	자동차 실적은 하회할 전망. 로봇과 자율주행 모멘텀의 진행에 [송선재]

## 단기투자유망종목

삼성전자, SK하이닉스, KB금융, 한화오션, 삼양식품, 대덕전자, 세방전지, 리가캠바이오, 파마리서치
코스메카코리아

2026년 7월 2일 | Global Asset Research

## Asset Allocation

###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를 바라며,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자산배분의 창(窓)

## 토큰 경제 (Tokenomics)로 이어지는 AI 생태계

### AI 경쟁은 성능에서 운영의 안정성과 수익성으로

그동안 AI 경쟁은 더 뛰어난 모델을 개발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전개됐다. 더 높은 성능과 긴 컨텍스트, 더 많은 파라미터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었다. 그러나 AI가 기업 업무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경쟁의 초점도 변화하고 있다.

AI 생태계는 크게 인프라 (Infrastructure), AI 모델 (Model), 애플리케이션 (Application)의 세 계층으로 나눌 수 있다. 인프라 기업은 GPU-데이터센터-네트워크 등 AI 연산 기반을 제공하고, AI 모델 기업은 이를 활용해 추론 서비스를 제공한다. 애플리케이션 기업은 AI 모델을 활용해 기업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최종 수익을 창출한다.

이 중, 애플리케이션 기업에게 중요한 것은 더 뛰어난 AI 모델보다도 이를 안정적으로 서비스하고 지속 가능한 수익으로 연결하는 역량이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토큰 (Token)은 AI 생태계의 핵심 경제 단위로 자리 잡으며, 이를 중심으로 새로운 경제 구조 (Tokenomics)가 형성되고 있다.

Goldman Sachs는 월간 토큰 사용량이 2030년까지 현재 대비 약 24배 증가한 120 Quadrillion Tokens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토큰당 추론 비용은 연간 60~70%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위 비용은 낮아지지만, 사용량 증가 속도가 이를 크게 웃돌면서 AI 활용 규모는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애플리케이션 기업의 비용 구조도 달라지고 있다

애플리케이션 계층의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전통적으로 사용자 수(Seat)를 기준으로 구독료를 받는 SaaS 모델을 가져왔다. 기존 SaaS에서는 고객이 증가해도 추가 원가는 제한적이었고, 일반적으로 70~90% 수준의 Gross Margin을 유지할 수 있었다.

반면 생성형 AI에서는 AI 기능을 제공할수록 AI 모델 호출이 증가하면서 토큰 사용량과 추론비도 함께 늘어난다. 즉, 기존 SaaS 대비 AI 서비스는 사용량 증가가 곧 원가 증가로 이어지는 구조를 갖게 된다. 그래서 AI Native SaaS의 Gross Margin은 50~60% 수준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추론비는 매출의 약 23%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Reuters 조사에서도 71%의 기업이 AI 관련 비용을 이미 예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AI 기능이 확대될수록 토큰 사용량도 함께 늘어나면서 'Token Tax'가 애플리케이션 기업의 새로운 비용 부담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금 방식도 변화할 수밖에 없다. 증가하는 Token Tax (토큰 사용에 따른 추가 비용)를 기존 구독 모델만으로는 회수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다양한 기업들이 AI 시대에 맞춰 Consumption 기반, Credit 기반의 과금 방식을 확대하며 AI 비용을 사용량에 맞춰 회수하는 구조를 강화하고 있다.



자산배분/해외크레딧  
Analyst 이영주 leeyoungju@hanafn.com

### 토큰 경제는 AI 생태계의 경쟁 방식을 바꾸고 있다

토큰은 인프라, AI 모델, 애플리케이션을 연결하는 공통의 경제 단위다. 토큰 사용량이 증가할수록 추론 수요도 함께 확대되며 GPU, 데이터센터, 네트워크 등 인프라 투자도 늘어나고 있다. 현재 AI 투자 사이클에서 인프라 계층이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받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다만 산업이 성숙할수록 관심은 단순한 토큰 사용량보다 토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수익으로 연결하는지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인프라 기업은 연산 처리 효율, AI 모델 기업은 추론 효율, 애플리케이션 기업은 AI 서비스를 안정적인 매출과 이익으로 연결하는 역량이 경쟁력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AI 생태계의 지속성을 결정하는 것은 '수익화'

인프라 투자만으로 AI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는 어렵다. 애플리케이션 기업이 AI 서비스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해야 기업의 AI 도입이 확대되고, 이는 AI 모델 활용과 인프라 투자 증가로 이어진다. 다시 향상된 성능과 낮아진 비용은 AI 활용을 더욱 확대시키며 생태계의 선순환을 만든다.

결국 시장의 관심도 토큰의 양(Volume)에서 토큰의 수익화(Monetization)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투자 포인트 역시 AI를 하나의 산업으로 접근하기보다 애플리케이션의 수익화가 AI 모델과 인프라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지속될 수 있는지에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

2026년 7월 2일 | Global Asset Research

## 인도

## 신흥국 전략

## 인도 증시 단기 체크포인트

## Compliance Notice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1)문순 진행 상황, 2)FY2027년 1/4분기 실적 확인 필요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을 둘러싼 잡음이 지속되면서 인도 증시는 뚜렷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다. 인도는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로, 유가 상승은 경상수지 악화, 물가 부담 확대, 루피화 약세 압력 등으로 이어지며 인도 펀더멘털 전반과 투자심리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최근 국제 유가가 고점 대비 큰 폭 하락한 점은 긍정적이거나,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유가 안정세가 지속될지에 대한 확신은 아직 부족하다. 이에 따라 인도 증시에 대한 투자심리 회복 역시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수급 측면에서도 유가 하락과 루피화 약세 압력 완화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일부 진정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다만 이를 본격적인 순매수 전환으로 해석하기에는 아직 이른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남아 있는 가운데 글로벌 자금은 여전히 신흥국 내에서도 AI반도체 등 단기 모멘텀이 뚜렷한 시장에 우선적으로 배분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외국인 자금의 추세적 복귀를 위해서는 유가와 환율 안정이 지속되는 가운데, 인도 고유의 투자 매력도 다시 부각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인도 증시의 핵심 투자 논리는 여전히 경기부양책과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내수 성장에 기반하고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인도의 중장기 매력도를 뒷받침하는 요인들이 실제로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이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단기 체크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순 진행 상황이다. 문순 강수량은 인도 경제와 증시에 있어 단순한 기상 지표를 넘어, 농촌 소비와 식품 물가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다. 인도는 농촌 인구 비중이 높아 농가소득과 농촌 소비가 전체 내수 흐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문순이 평년보다 부진할 경우 카리프 작물의 파종과 수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농가소득 둔화와 농촌 소비 여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동시에 작황 부진은 농산물 가격 상승 압력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식품 물가 부담이 확대될 경우 가계 실질 구매력이 약화되면서 내수소비 회복세도 제약될 수 있다. 인도 문순은 통상 6월 말~7월 초 인도 전역으로 확산되는데, 2026년 6월 누적 강수량이 평년 대비 40% 부족한 수준을 기록하면서 초기 부진을 시사했다. 향후 문순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누적 강수량 부족분이 얼마나 빠르게 회복되는지, 그리고 주요 농업 지역의 강수 정상화가 확인되는지가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둘째, 내수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다. 7월 FY2027년 1/4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된다. 이번 실적은 지정학적 리스크와 유가·환율 변동성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된 이후 기업들의 방어력을 확인하는 첫 시험대라는 점에서 특히 중요하다. 다만, 7월 9일 TCS를 시작으로 IT 대형주 실적이 먼저 발표되는데, 해당 업종에 대한 기대치는 이미 보수적으로 형성되어 있다. IT 대형주의 실적 또는 가이던스가 부진할 경우 시즌 초반 지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다만, 더 중요한 것은 IT 이후 발표될 금융, 소비, 인프라 등 내수 관련 업종의 실적이다. 관련 기업들의 견조한 실적이 확인될 경우, 인도 증시의 중장기 투자 논리를 뒷받침해 온 논리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대외 변수로 제한됐던 인도 증시의 투자심리 회복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결론적으로, 인도 증시는 단기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와 외국인 수급 부진으로 상승 탄력이 제한되는 구간에 있다. 다만, 향후 문순 부진에 따른 소비 둔화·물가 상승 리스크가 제한되고, 내수 업종의 실적이 견조하게 확인될 경우 인도 증시에 대한 투자심리도 점진적으로 회복될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Analyst 김근아 geunak@hanafn.com

2026년 7월 1일 | Global Fixed Income

## Fixed Income

### Compliance Notice

본 조서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해외채권

## 유가, AI, 그리고 금리

- 노동소득분배율은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반면 미국 기업의 세전 이익은 최고치에 근접
- 소득 증가율 하락에도 소비를 방어할 수 있는 이유: AI 주도주 상승에 따른 자산 효과
- AI 인프라 자본지출을 제외한 미국 경제 체력은 강하다고 볼 수 없음. 하지만 기업의 투자 심리는 여전히 강함
- 이미 유가 하락 반영한 금리. 견조한 성장을 이어진다면 하반기 금리 상승에 무게

### 유가 하락 반영된 금리의 다음 방향성 모색

미국의 노동소득분배율(labor share of income)이 역사상 최저치를 기록 중이다. 쉽게 말해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임금과 급여의 비중이 큰 폭으로 감소했음을 의미한다.

노동소득분배율은 20세기 후반까지 안정적이었지만,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 붕괴와 금융위기를 거치며 구조적 하락을 겪고 있다. 즉, 미국의 생산성이나 물가가 노동자들의 임금보다 빠르게 성장했음을 의미한다. [도표 1]

팬데믹 이후 하락세 역시 과거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 2000년대 이전의 미국 경제는 노동소득분배율이 ① 경기 침체기에 일시적으로 상승 → ② 경기 회복기에 하락 → ③ 경기 확장기 후반 임금 상승과 함께 반등하는 경로를 보였다. 팬데믹 초기 역시 노동소득분배율이 상승한 후 하락하는 전통적인 경로를 밟는 중이다. [도표 2]

연준 보고서('The Post-COVID Decline in the Labor Share')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의 원인은 '산업 간 이동(share)'이 아니라 전적으로 '산업 내부의 변화(shift)'에 의해 주도된 것으로 파악된다. 즉, 특정 산업으로의 쏠림 때문이 아니라 각 개별 산업 내부에서 기업들이 생산성 향상의 과실을 노동자(임금)에게 나누지 않고 자본(마진)으로 온전히 독식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산업별로 보면 교육·헬스케어처럼 노동 집약도가 높아 노동소득분배율이 높은 업종이 있는 반면, 제조업이나 농업처럼 자동화 비중이 높아 분배율이 낮은 업종이 있다. 팬데믹 기간에 노동소득분배율이 낮은 산업으로 경제 활동이 쏠렸다면, 개별 산업 내 분배율에 변화가 없더라도 전체적인 노동소득분배율은 하락할 수 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산업 생산량 비중의 절대적 변화량을 나타내는 '재배분 지수'를 분석한 결과 닷컴 버블과 금융위기 전후와 유사하게 팬데믹 초기에는 산업 간 재배분이 급증했으나 이후 낮은 수준에서 안정되었음을 확인했다. 즉, 어떤 산업이든 상관없이 모든 산업 안에서 기업들이 벌어들인 돈에 비해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덜 준 것이다. [도표 3~4]



해외채권 Analyst 허성우  
deanheo@hanafn.com

2026년 07월 02일 | 기업분석\_기업분석(Report)

**Not Rated**현재주가(7.1) **80,600원****Key Data**

KOSDAQ 지수 (pt)	929.35
52주 최고/최저(원)	103,000/55,800
시가총액(십억원)	860.8
시가총액비중(%)	0.17
발행주식수(천주)	10,680.0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79.2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6.1
외국인지분율(%)	22.76
주요주주 지분율(%)	
박은희 외 3인	38.95
국민연금공단	12.52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788	892
영업이익(십억원)	106	123
순이익(십억원)	83	94
EPS(원)	6,490	7,310
BPS(원)	29,801	36,871

**Stock Price****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2	2023	2024	2025
매출액	399	471	524	641
영업이익	10	49	60	84
세전이익	6	46	68	78
순이익	3	22	43	45
EPS	249	2,090	4,007	4,225
증감율	(70.1)	739.4	91.7	6.2
PER	41.2	17.4	13.8	15.7
PBR	0.7	2.3	2.7	2.8
EV/EBITDA	9.7	8.0	9.4	8.8
ROE	1.8	13.2	19.6	18.0
BPS	13,732	15,874	20,450	23,663
DPS	0	0	100	370



Analyst 박중대 forsword@hanafn.com  
RA 양정석 jsyang@hanafn.com

**코스메카코리아 (241710)****하반기는 더 크다****2분기 연결 영업이익 285억원(YoY 24%) 추정**

2분기 연결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동기대비 모두 24% 성장한 2,010억원과 285억원 수준이 가능할 전망이다. 국내 사업 매출이 인디 브랜드 수출 호조로 YoY 37% 고성장이면서 실적 개선을 견인할 전망이다. 잉글우드랩 한국 사업이 G사 발주 저하로 감익하는 아쉬움이 있으나, 국내 사업 성장과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계열사 실적 부진을 모두 극복하고 남음이 있다.

**하반기 하이드로겔 라인 풀가동, 신규 성장 동력으로**

국내 사업은 양과 질이 모두 좋아지고 있다. 구다이글로벌/아누아 등 기존 메이저 거래처들에 더해 셀리맥스, 온그리디언츠, 메노킨 등 신규 인디 브랜드 업체들의 매출 기여도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달바글로벌과 메디큐브는 각각 톱5와 톱10 거래처로 진입했다. 하이드로겔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올해 1월부터 4개 라인으로 본격 가동했는데, 7월 수주는 풀캐파 상태이다. 하이드로겔 마스크 글로벌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ODM 기업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생산 캐파 여유가 있는 코스메카코리아로 다양한 브랜드들의 신규 수주가 몰리고 있다. 마스크팩으로 유명한 A사를 비롯, 전년도 히어로 인디 브랜드 D사와 의료기기 기업 R사까지 10여개 브랜드 물량을 모두 생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2분기 20억원도 안됐던 하이드로겔 매출은 3분기 1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추가 설비 증설 계획도 갖고 있다. 하이드로겔은 다른 카테고리보다 포장 인력이 많이 필요한데, 코스메카코리아의 하이드로겔 공장은 청주에 있어 인력 수급이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K부터 역대 최대 수출 모멘텀 수혜 클 듯, 현저한 저평가**

이에 따라 하반기 매출은 기존 예상치를 훌쩍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하나증권의 하반기 국내 사업 매출 추정치는 3분기 1,400억원, 4분기 1,300억원 남짓인데, 이 수치들보다 100~200억원까지 더 나올 수도 있다. 코스메카코리아는 2분기 실적발표와 함께 다시한번 연간 가이드를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 6월 화장품 수출은 YoY 42% 증가했고, 한국 화장품 수출은 역대 최대 모멘텀을 보이고 있다. 지역/채널/카테고리 확대 효과가 계절성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코스메카코리아는 국내 톱 3 ODM 업체로서 수혜가 클 수밖에 없다. 현재 주가는 12MF PER 11배로 현저한 저평가 상태다.

2026년 7월 2일 | 기업분석\_Earnings Preview

## BUY (유지)

목표주가(12M) 540,000원  
현재주가(7.01) 341,000원

### Key Data

KOSPI 지수 (pt)	8,303.41
52주 최고/최저(원)	522,000/329,500
시가총액(십억원)	2,074.2
시가총액비중(%)	0.03
발행주식수(천주)	6,082.6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25.8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9.6
외국인지분율(%)	21.96
주요주주 지분율(%)	
농심홀딩스 외 5인	44.24
국민연금공단	5.90

###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3,711.1	3,884.9
영업이익(십억원)	213.3	230.4
순이익(십억원)	190.7	204.2
EPS(원)	31,456	33,577
BPS(원)	513,871	543,621

### Stock Price



### Financial Data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3,438.7	3,514.3	3,787.0	3,976.3
영업이익	163.1	183.9	199.4	222.0
세전이익	217.8	218.1	230.4	252.1
순이익	157.3	170.1	173.4	189.6
EPS	25,861	27,970	28,503	31,165
증감율	(8.49)	8.16	1.91	9.34
PER	14.46	15.46	11.77	10.77
PBR	0.83	0.91	0.67	0.64
EV/EBITDA	4.99	5.10	2.94	2.43
ROE	6.17	6.18	5.98	6.22
BPS	452,565	476,371	499,120	524,530
DPS	5,000	6,000	6,000	6,000



Analyst 심은주 yesej01@hanafn.com  
RA 고찬결 cgko@hanafn.com

# 농심 (004370)

## 2Q26 Pre: 원가 부담 가시화

### 2Q26 Pre: 손익은 보수적 접근 견지

2분기 연결 매출액 및 영업이익을 각각 9,324억원(YoY 7.4%), 463억원(YoY 15.2%)으로 추정한다. 별도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각각 6,973억원(YoY 0.5%), 280억원(YoY -9.1%)으로 예상된다. 부자재 단가 인상이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연결 손익은 시장 기대를 소폭 하회할 것으로 추정한다.

① 라면 총매출액(국내+해외수출)은 YoY 2.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는 일부 품목 판가 인하 영향이 반영되기 시작하나, 적극적인 하절기 신제품 출시로 YoY 1% 내외 성장할 것으로 추정한다. 수출은 국가별 거래선 정비 이후 1분기와 유사하게 YoY 두 자리 수 성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② 다만, 부자재 단가 인상 기인해 별도 손익은 YoY -9.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2025년 농심의 부자재 매입액은 4,658억원으로 일부 단가 인상 약 10% 가정시 월 20억원 이상 비용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한다. ③ 해외 탑라인은 견조한 성장이 전망된다. 북미 매출은 달러 기준 YoY 3% 내외 성장이 예상되나, 우호적인 환율 효과가 더해질 전망이다. 중국 매출은 주요 간식점 채널 입점 확대 및 우호적인 환율 효과로 YoY 20% 내외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 일본은 주요 편의점에 '신라면 볶음면'을 출시하면서 YoY 20% 내외 매출 성장을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 국내보다 해외에 기대

올해 연결 매출액 및 영업이익을 각각 3조 7,870억원(YoY 7.8%), 1,994억원(YoY 8.4%)으로 추정한다. 별도 손익은 전년 수준~YoY 소폭 감익할 것으로 추정한다. 2분기부터 일부 품목 단가 인하가 반영되기 시작하는 한편 부자재 중심의 원가 부담이 본격화되기 때문이다. 올해 전사 실적 개선의 Key는 해외 성과가 될 것이다. 북미는 효율적인 광고비 집행을 통해 영업마진을 YoY 2.0%p 내외 개선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중국은 기저효과 및 간식채널로의 적극적인 입점, 우호적인 환율 기인해 YoY 두 자리 수 탑라인 성장 및 영업마진 개선이 전망된다.

### 밸류에이션은 부담 없으나 단기 실적 모멘텀 제한적

현 주가는 12개월 Fwd PBR 0.7배에 거래 중이다. 역사적 밴드 하단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은 제한적이나 단기 실적 모멘텀은 다소 제한적이다.

2026년 7월 2일 | 기업분석\_Earnings Preview

## BUY (유지)

목표주가(12M) 1,800,000원  
 현재주가(7.01) 1,162,000원

### Key Data

KOSPI 지수 (pt)	8,303.41
52주 최고/최저(원)	1,630,000/1,022,000
시가총액(십억원)	8,753.4
시가총액비중(%)	0.13
발행주식수(천주)	7,533.0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58.6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73.6
외국인지분율(%)	15.49
주요주주 지분율(%)	
삼양푸드스퀘어 외 6인	44.98
국민연금공단	10.56

###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3,055.6	3,642.9
영업이익(십억원)	726.6	871.1
순이익(십억원)	556.9	664.4
EPS(원)	73,673	87,788
BPS(원)	234,780	317,782

### Stock Price



### Financial Data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1,728.0	2,351.8	2,936.2	3,548.1
영업이익	344.6	524.2	705.3	853.7
세전이익	351.6	516.9	714.3	858.5
순이익	272.0	389.4	540.0	652.7
EPS	36,106	51,697	71,689	86,644
중감율	115.42	43.18	38.67	20.86
PER	21.19	23.81	15.61	12.91
PBR	7.00	7.39	4.81	3.58
EV/EBITDA	14.87	16.01	10.56	8.31
ROE	39.37	37.59	35.89	31.77
BPS	109,340	166,650	232,839	312,683
DPS	3,300	4,800	6,200	7,400



Analyst 심은주 yesej01@hanafn.com  
 RA 고찬결 cgko@hanafn.com

# 삼양식품(003230)

## 2Q26 Pre: 시장 기대 충족 전망

### 2Q26 Pre: 시장 기대 부합 예상

2분기 연결 매출액 및 영업이익을 각각 7,169억원(YoY 29.6%), 1,776억원(YoY 47.9%, OPM 24.8%)으로 추정한다. 시장 기대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4~5월 누계 삼양식품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24.0% 증가한 것으로 추산된다. 사측에 의하면 6월 들어서도 미주 및 중국의 견조한 판매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를 감안시 2분기 수출 성장률은 1분기와 유사한 YoY 40%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도 '우지 라면'이 200억원 내외 매출 기여하면서 분기 1 천억원 내외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한다. 북중미 월드컵 등 글로벌 광판비 증가가 손익을 일부 훼손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으나, 우호적인 환율이 이를 상쇄할 전망이다. 원화 대비 달러 및 위안화 모두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 전사 실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 하반기 베이스 부담 있으나, 중국 공장 가동 이후 Level-up 가능

밀양2공장 가동 속도가 가팔라지면서 실적 기여도가 커지고 있다. 밀양은 유연근무제를 통해 2교대 교체 이후 부족한 일손을 상쇄 중이다. 물론 첫 가동 시점 감안시 하반기는 베이스에 대한 부담은 상존한다. 해외 성장률은 1H26 YoY 40% 내외 → 2H26 30% 내외로 다소 둔화될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연말~내년 초 중국 공장 가동에 따른 또 한 번의 Level-up이 가능한 만큼 중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 가격 매력 높아진 주가

최근 2분기 손익 훼손 우려 기인해 주가는 27F PER 13배 수준까지 하락했다. 글로벌 Peer 밸류에이션 밴드 하단이 15배인 점 감안하면 단기 가격 매력이 커졌다. 2분기 실적도 우려와는 달리 시장 기대에 부합하는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을 바라보면 저가 매수 기회로 판단한다.

2026년 7월 2일 | 기업분석\_Earnings Preview

**BUY (유지)**

목표주가(12M) **67,000원**  
 현재주가(7.01) **51,700원**

**Key Data**

KOSPI 지수 (pt)	8,303.41
52주 최고/최저(원)	64,400/22,900
시가총액(십억원)	10,133.2
시가총액비중(%)	0.15
발행주식수(천주)	196,000.0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3,431.5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177.0
외국인지분율(%)	37.83
주요주주 지분율(%)	
삼성SDI 외 6 인	20.63
국민연금공단	7.31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10,170.1	11,522.7
영업이익(십억원)	882.0	1,020.0
순이익(십억원)	720.0	834.5
EPS(원)	3,598	4,173
BPS(원)	27,100	30,499

**Stock Price****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9,966.6	9,028.8	9,711.3	12,360.9
영업이익	971.6	792.1	824.5	1,023.2
세전이익	903.8	830.4	904.8	1,101.5
순이익	756.9	617.5	670.8	816.4
EPS	3,862	3,150	3,423	4,165
증감율	0.42	(18.44)	8.67	21.68
PER	4.29	7.63	13.91	11.43
PBR	0.77	0.99	1.75	1.56
EV/EBITDA	0.24	2.01	6.29	4.48
ROE	19.65	13.76	13.34	14.45
BPS	21,591	24,187	27,138	30,513
DPS	660	790	790	790



Analyst 김승준 sjunkim@hanafn.com

**삼성E&A (028050)****2분기 증등 실적은 양호할 전망****2Q26 추정: 매출액 2.4조원, 영업이익 1,992억원(OPM 8.4%)**

삼성E&A 2Q26 매출액 2.4조원(+8.6%yoy), 영업이익 1,992억원(+10.1%yoy)으로 추정한다. 전 분기 대비 첨단산업에서의 매출액 증가를 전망했다. 작년 하반기부터 첨단산업 부문에서 분기별 1조원씩 수주한 결과가 2분기 매출액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봤다. 화공부문은 사우디 파달리 프로젝트에서 매출 기여가 크며, 호르무즈 해협 폐쇄로 인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추정했다. 기존 자재로 공정을 이어가고 있어 매출 지연은 없었으며, 일부 물류 비용의 증가도 예비비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우디는 모듈을 현지 제작해서 해협 리스크가 없었으며, UAE 타지즈의 경우에도 모듈 제작 증으로 운송 리스크는 발생하지 않았다. 2분기 수주는 2.6조원으로 추정(첨단산업 1조원, 뉴에너지 1.5조원)했다. 증등 수처리 8억달러 수주를 반영했다(6/30 계약).

**수주 파이프라인 업데이트: 3분기 사우디SAN6, 하반기 멕시코/증등**

연간 파이프라인 리스트는 크게 달라지진 않았다. 3분기에 사우디 SAN6(35억달러)의 수주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멕시코 멕시코놀, 사우디 카프지, 카타르 비료는 하반기 결과를 예상하고 있다. 증등 재건과 관련해서는 진행하려고 하는 프로젝트들은 존재하나, 금액 규모나 어떻게 재건해야 할지에 대한 스터디 수준이다. 큰 금액 수준은 아니지만 실제 재건 수요는 존재하며, 향후 스터디 결과에 따라 수주를 기대해 볼 법하다. 증등의 수출 우회로 관련하여서는 삼성E&A가 프로젝트에 관여하는 바는 없은 것으로 보인다. 첨단산업 중 연간 계열사 수주는 약 4~6조원을 전망하는데, P5 Fab1의 공사 진행과 Fab2의 동시 시작을 반영했다.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67,000원 유지**

삼성E&A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67,000원을 유지한다. 목표주가는 26년 EPS 추정치에 Target P/E 20배를 적용했다. 삼성E&A는 평택에 이어 용인, 호남 반도체 CAPEX 사이클의 수혜종목이며,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전기,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발주도 기대할 수 있다. 여기에 이란 종전 이후의 제2의 증등투자붐과 북미에서의 친환경 수주 등으로 실적 우상향 가능성이 매우 높다. 커지는 시장에 맞춰 인력을 인도 등에서 매년 꾸준하게 늘리고 있으며, Si와 모듈 등을 활용하여 캐파도 확장하고 있다. 연간 매출액 13조원 이상까지도 가능한 캐파로, 실적 증가에 따른 주가 상승을 무난히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다.

2026년 7월 2일 | 기업분석

## BUY (유지)

목표주가(12M) 42,000원  
 현재주가(7.01) 31,95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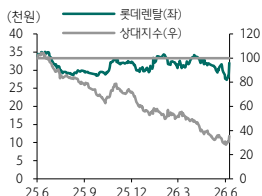
### Key Data

KOSPI 지수 (pt)	8,303.41
52주 최고/최저(원)	35,050/27,300
시가총액(십억원)	1,160.1
시가총액비중(%)	0.02
발행주식수(천주)	36,309.4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48.0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1.5
외국인지분율(%)	6.91
주요주주 지분율(%)	
호텔롯데 외 8 인	61.21
브이아이피자산운용	7.33

###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3,079.3	3,285.4
영업이익(십억원)	359.4	390.3
순이익(십억원)	148.9	169.3
EPS(원)	4,141	4,673
BPS(원)	46,604	51,034

### Stock Price



###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2,792.4	2,918.8	3,020.0	3,149.8
영업이익	284.8	312.5	344.9	365.7
세전이익	133.4	167.0	197.2	201.0
순이익	106.8	127.6	149.0	151.8
EPS	2,917	3,514	4,103	4,182
증감율	(10.93)	20.47	16.76	1.93
PER	10.27	8.96	6.85	6.72
PBR	0.74	0.73	0.59	0.56
EV/EBITDA	3.85	4.17	4.18	4.09
ROE	7.50	8.39	9.08	8.59
BPS	40,683	43,125	47,228	50,109
DPS	1,200	1,200	1,300	1,300



Analyst 안도현 dohyunahn@hanafn.com

# 롯데렌탈 (089860)

## 2Q26 Pre: 인기가 많아요

### 2분기 영업이익 821억원(+6%) 전망

2분기 롯데렌탈 매출액은 2% (YoY) 증가한 7,629억원, 영업이익은 6% 증가한 821억원(영업이익률 10.8%(+0.4%p))로 전망한다. 본업인 렌터카 호조가 지속되고 있고, 단기/카셰어링도 국내 여행 수요 증가로 양호한 성장 흐름을 보이고 있다. 다만 중동 전쟁 이후 중고차 수출 수요가 위축되고 전기차 수요가 증가하는 등 요인이 중고차 가격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고, 비즈렌탈도 포트폴리오 조정 중인 만큼 긍정/부정 요인이 동시에 존재하는 2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사모펀드에게 인수된다면 배당성향 제고 가능성 높다

어피니티가 롯데렌탈 인수를 포기했고, 이후 글로벌 사모펀드들이 롯데렌탈 인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사모펀드가 롯데렌탈의 신규 대주주가 된다면 배당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롯데렌탈의 연간 당기순이익은 약 1,400억원 규모이며, 차량 순구매비용(차량 구매액-차량 판매액)은 약 1조원, 감가상각비는 연간 1.1조원이 집행되기 때문에 자본/차입금을 늘리지 않아도 영업이 유지되고 현금이 축적되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롯데렌탈은 2025년 배당금 주당 1,200원, 배당 총액 435억원을 지급했는데, 사업 구조가 탄탄하기 때문에 추가로 배당성향을 제고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2대주주(7.33% 보유)인 VIP자산운용이 밸류업 및 주주환원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 목표주가 4.2만원 유지, 대주주 교체 이후 상향 여지 남아있음

2026년의 중고차 시장 위축 영향으로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를 3,450억원(+10%, 영업이익률 11.4%)으로 소폭 하향한다. 12MF EPS(4,130원)에 Target P/E 10배를 적용하여 목표주가는 42,000원을 유지하고 투자 의견 BUY도 유지한다. 지금은 보수적으로 목표가를 책정했으나, 대주주 교체 이후 배당/성장 전략 등을 구체화 한다면 Valuation/EPS 상향 여지도 충분하다. 현재 주가는 P/E 8배로 오늘 상승세를 감안해도 아직 저평가 상태다.

2026년 7월 2일 | 산업분석\_Industry Preview

## Overweight

### Top Picks

KB금융(105560)

BUY | TP 220,000원 | CP 158,500원

신한지주(055550)

BUY | TP 135,000원 | CP 96,400원

## 은행

### 금리모멘텀과 실적모멘텀 동반 부각 예상. 비중확대 권고

#### 2분기 은행지주사 추정 순이익은 QoQ 9.7% 증가한 7.3조원. 핵심이익 추가 개선 예상

2분기 은행지주사(기업은행 포함) 추정 순이익은 약 7.3조원으로 핵심이익 추가 개선에 따라 QoQ 9.7% 증가해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할 전망이다. 1) 기업대출 증가에 힘입어 2분기 원화대출성장률은 1.2%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2) 은행 NIM은 2분기에도 QoQ 약 2bp 추가 상승해 순이자이익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3) 2분기에도 주식 거래량이 추가로 늘면서 증권중개수수료 등을 비롯해 자본시장 관련 수수료이익도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한다. 4) 시중금리가 추가 상승했지만 상승 폭은 1분기 대비 소폭에 그쳐 채권평가손실도 전분기보다 적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이 전체적으로도 호조세를 보이면서 top-line 성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5) 연체율 상승과 기업 신용위험 재평가 영향 등으로 대손비용은 다소 증가하겠지만 소폭에 그칠 공산이 크다. 한편 홍콩 ELS 과징금의 경우 아직 금융위의 최종 결론이 나지는 않았지만 금감원이 규모를 크게 경감하면서 과징금 손실처리액 중 일부가 환입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은행별로는 KB금융과 신한지주 실적이 가장 양호. 그 외 은행들은 컨센서스 부합

은행별로는 증권사 이익기여도가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KB금융과 신한지주의 실적이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할 전망이다. KB금융은 2조원에 육박 혹은 상회하는 호실적 시현이 예상되고, 신한지주도 2분기 순이익이 1.7조원을 상회해 컨센서스를 크게 웃돌 것으로 기대한다. 반면 하나금융과 우리금융은 QoQ 증가하지만 각각 1.24조원과 9,400억원 내외의 순이익을 시현하면서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으로 보인다. 그 외 중소형은행 중에서는 BNK금융과 JB금융이 2분기에 각각 2,720억원과 2,220억원의 순이익으로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며, 나머지 은행들은 실적이 컨센서스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 환율 상승에도 2분기 CET 1 비율 상승 예상. 자본비율 관련 우려 다시 약화될 전망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감독당국의 해외장기지분투자/해외점포이익잉여금에 대한 시장리스크 구조적 외환포지션 승인으로 인해 일부 은행지주사의 경우 1분기 CET 1 비율 최종 수치가 상향(신한지주 13.19%에서 13.30%, 하나금융 13.09%에서 13.23%)되었다. 2분기에는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하락 요인 약 5~7bp 발생 및 배당 지급과 자사주 매입 등에도 불구하고 경상 RWA 증가 폭이 크지 않은데다 양호한 실적 시현에 따른 당기 순이익 효과로 은행지주사 그룹 CET 1 비율은 평균 약 5~10bp 내외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금감원으로부터 손실사건 운영리스크 적용기간 축소까지 승인받을 경우 추가로 10bp 이상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시중금리 상승에 따른 기타포괄손익누계액 감소 가능성은 일부 있겠지만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분기 중 다소 큰폭 하락했던 CET 1 비율이 2분기에는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는 점에서 자본비율 관련 우려는 약화될 공산이 크다고 판단한다



Analyst 최경욱, CFA cuchoi@hanafn.com  
RA 정소영 soyoungjung@hanafn.com

### 하나금융과 우리금융 NIM 개선 폭 커질 전망. 은행 대손비용 증가 폭은 미미할 듯

국채금리가 상승세로 돌아선 2025년 5월을 기점으로 은행 NIM도 상승세로 전환했다. 2분기에도 은행 NIM은 전분기대비 평균 2bp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 중에서는 하나금융과 우리금융의 2분기 NIM이 각각 5bp와 3bp 상승해 은행 중 상승 폭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한다. 하나금융과 우리금융은 3개월 이하 원화금리감응갭이 타행들보다 커 금리 상승기에는 NIM 상승 속도가 빠를 수 밖에 없는데 최근에 타행대비 NIM 상승 폭이 커지고 있는 주된 이유로 추정한다. 반면 iM금융과 BNK금융은 2분기 중 NIM이 각각 2bp와 1bp 하락해 다소 부진할 전망이다. 한편 중앙미디어그룹 워크아웃 신청 여파로 소폭의 대손 부담이 발생하겠지만 추가 대손비용은 은행 전체적으로 약 950억원에 불과해 미미할 전망이다. 전체 대출 익스포저가 5,750억원으로 크지 않고, JTBC 사옥 등 부동산 담보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연체율 상승과 기업 신용위험 재평가 영향 등으로 2분기 대손충당금은 1분기대비 소폭 늘어나겠지만 증가 폭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유가 지속에 따른 credit risk 발생 우려 또한 최근 유가가 빠르게 하락하면서 상당히 약화된 상황이다. 2분기 은행 총자산대비 대손비용률은 0.29%로 1분기의 0.27% 대비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 하반기 NIM은 숨고르기 예상되지만 7월 금통위를 기점으로 금리모멘텀 부각 기대

7월 1일부터 지급준비금, 예금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의 법정비용을 대출 가산금리에 반영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NIM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 다만 이는 신규취급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영향이 즉각적으로 크게 나타나지는 않을 전망이다. 그 밖에 4월부터 시행된 주택신용보증 출연료를 개편 영향도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기존 대출유형에 따라 차등화되었던 출연료율이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화되는 것으로 변경되면서(평균 대출액의 1배 초과 대출은 기준요율 0.27%, 2배를 초과하는 대출은 최고치인 0.30%를 적용) 이는 은행 NIM을 약 2~3bp 하락시키는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요인들을 감안할 경우 은행 NIM은 1~2분기 상승 후 하반기에는 다소 숨고르기 양상을 보일 공산이 크다고 판단한다. 다만 7월 금통위를 기점으로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될 여지가 높고, 경제성장률과 물가 상황 등을 감안시 국채금리도 중장기적으로 동반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NIM 상승 추세가 계속될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 어렵다. 7월 금통위를 기점으로 은행주에 금리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과징금 불확실성도 해소 예상. KB와 신한이 실적모멘텀이 은행주 전반에 영향 미칠 것

전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홍콩 ELS 과징금과 관련한 최종 결론은 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15일 예정된 정례회의에서는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하며, 우리는 금융위 추가 경감 등을 통해 KB금융과 신한지주, 하나금융은 기손실처리했던 과징금 중 각각 1,100억원과 750억원, 600억원 내외를 환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2분기 이익추정치에는 금감원 부과 기준인 600억원과 650억원, 400억원 정도의 환입만 가정). 한편 향후 시장 환경이 그동안의 반도체 위주의 쏠림 현상에서 다소 벗어나 업종간 순환매 장세가 형성될 경우 은행주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7월 금통위를 기점으로 금리모멘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홍콩 ELS 과징금 관련 불확실성 해소와 더불어 KB금융과 신한지주를 중심으로 한 2분기 실적모멘텀이 은행주 전반에 투자심리 개선 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은행 업종 최선호주로 KB금융(매수/TP 220,000원)과 신한지주(매수/TP 135,000원)를 제시.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양사의 펀더멘털 개선에 대한 투자자들의 믿음은 더욱 확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2026년 7월 2일 | 산업분석\_Earnings Preview

## Overweight

### Top Picks 및 관심종목

하이브(352820)

BUY | TP 350,000원 | CP 204,000원

에스엠(041510)

BUY | TP 124,000원 | CP 73,400원

JYP Ent.(035900)

BUY | TP 79,000원 | CP 53,200원

와이지엔터테인먼트(122870)

BUY | TP 63,000원 | CP 44,000원

\*CP 2026년 7월 1일

# 엔터테인먼트

## 말도 안되는 저평가 구간

### 예상했던 기간 조정보다 더 가파른 가격 조정으로 강한 비중확대를 추천

AI에 집중된 수급 이슈 등으로 주가가 상당히 부진했지만, 2분기 실적은 대체로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하며, 부진한 회사 역시 하반기 높은 실적 모멘텀이 예상된다. 5세대인 코르티스와 캣츠아이는 역사를 바꿀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이는 경쟁 그룹의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예상했던 기간 조정보다 더 가파른 가격 조정이 나타났기에 비중확대를 추천하며, 현 주가는 하이브 22배(2027년 기준), SM/JYP/YG는 12~15배(2026년 기준) 내외로 상당한 저평가 수준이다.

### 2분기 실적은 하이브/SM 부합, JYP/YG 하회

2분기 하이브/SM/JYP/YG의 예상 영업이익은 각각 1,445억원(+119%)/538억원(+13%)/379억원(-27%)/77억원(-7%)으로 하이브/SM은 컨센서스에 부합, JYP/YG는 하회할 것이다. 하이브는 BTS의 역사적인 월드투어로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며, SM도 NCT wish/라이즈/에스파가 동반 컴백하며 호실적이 예상된다. JYP와 YG는 다소 부진하지만, JYP는 하반기 스트레이키즈의 컴백(8월) 및 대규모 투어로 사상 최대 실적을, YG도 8월부터 빅뱅의 20주년 투어 및 연내 신인 남자 그룹의 데뷔를 준비하고 있다.

### 하이브 실적에 대한 우려 해소는 매우 긍정적

BTS의 사상 최대 실적 선반영 및 형 만한 아우의 부재로 불과 4달만에 섹터 주가가 -40~50% 수준을 기록했다. 하이브 주가는 역사적 저점인 예상 P/E 30배도 30% 하회하는 21배(주가 기준 약 19만원)까지 하락했으며, 나머지 3사도 저점인 15배를 뚫어 SM 기준으로 10배까지 하락했다. 이런 극단적인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BTS의 분배율 우려가 있는 하이브의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중요했는데, 해외 언론을 통해 4~5월 누적 투어 매출액이 발표되는 등 높은 기대치에 부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하반기 실적 전망에도 높은 안정감을 줄 것이다. 5세대는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고, 세븐틴은 이미 내년 2분기부터 8명의 멤버가 활동 가능한 수준으로 군대 이슈를 해결 하고 있다. 하이브가 반등한다면 타 기획사들도 동반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Analyst 이기훈 sacredkh@hanafn.com  
RA 김현수 hyunsookim@hanafn.com

2026년 7월 2일 | 산업분석\_Earnings Preview

## Overweight

### Top Picks 및 관심종목

#### GS피앤엘(499790)

BUY | TP 67,000원(하향) | CP 37,350원

#### 서부T&D(006730)

BUY | TP 18,000원(하향) | CP 10,290원

\*CP 2026년 7월 1일

## 호텔

### 또 한번의 호실적에도 황당한 수준의 저평가

#### 인바운드, 2분기 실적, 글로벌 피어 모두 좋지만 주가는 신저가

2026년 5월 누적 외국인 관광객은 872만명(+20%), 5월 누적 한국/일본의 중국 인바운드는 각각 각각 256만명(+24% YoY)/172만명(-56%)으로 한일령의 수혜도 확실하다. 유가 급등에 따른 항공편 취소 우려도 유가의 정상화로 해소되었다. 호텔 산업은 1분기 실적 서프라이즈에 이어 2분기도 OCC와 ADR의 동반 상승으로 높은 실적 레버리지가 예상되며, 글로벌 호텔 체인인 힐튼과 메리어트도 신고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주가는 2026년 예상 P/E 기준 불과 12배, 혹은 영업이익 기준 6~8배 수준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주가와외의 괴리가 너무 높아 어쩔 수 없이 양 사 모두 목표주가를 하향하나 황당한 수준의 저평가로 비중확대를 강하게 추천한다.

#### GS피앤엘: 2Q 예상 OP 240억원(+107% YoY)

2분기 예상 매출액/영업이익은 각각 1,514억원(+35% YoY)/240억원(+107%)으로 컨센서스(235억원)에 부합할 것이다. ADR은 작년 2분기 평균 원/달러 환율이 1,400원 내외였던 점을 감안할 때 대부분 호텔에서 평균 10% 내외의 상승이 예상된다. 호텔별 OCC는 그랜드가 1~4월까지 이어진 연회장 리뉴얼로 OCC가 소폭 하락하면서 매출도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웨스틴의 OCC가 이미 85% 내외까지 빠르게 상승한 것으로 추정되며, 1분기 대비로는 10%p 이상 상승한 것이다. ADR도 30만원 중반까지 상승하면서 높은 이익 레버리지가 예상된다. 나인트리도 OCC가 소폭 상승한 88%로 추정되며, 제주는 서관 리뉴얼로 65%(-25%p)로 추정된다. 2분기는 재산세가 반영되는데, 웨스틴 리뉴얼에 따른 자산 가치 상승으로 작년 128억원 대비 증가한 140억원 내외를 가정했다. 2분기 세금 분만 고려해도 3분기는 영업이익은 380억원 이상이 될 것이다. 시장 밸류에이션 하락을 반영해 목표주가를 67,000원(-7%)으로 하향한다.

#### 서부T&D: 2Q 예상 OP 198억원(+77% YoY)

2분기 예상 매출액/영업이익은 각각 758억원(+39% YoY)/198억원(+77%)으로 컨센서스(212억원)에 부합할 것이다. 호텔 부문의 OCC는 약 78%(+6.0%p YoY)로 역대 최대인 작년 4분기(75%)도 뛰어넘는 고성장이 예상된다. ADR도 처음으로 20만원을 넘어 약 21만원(+12%)을 전망한다. 재산세(약 4~50억원)만 고려하더라도 3분기 영업이익은 240억원 이상을 상회할 것이다. 하반기 성수기로 진입함에도 OCC와 ADR이 오히려 보수적으로 전망되어 있는데, 이 기준으로도 현 주가가 목표주가와외의 괴리가 높아 SOTP 기준 호텔 부문 밸류에이션을 하향하며 목표주가를 18,000원(-14%)으로 하향한다.



Analyst 이기훈 sacredkh@hanafn.com  
RA 김현수 hyunsookim@hanafn.com

2026년 7월 2일 | 산업분석\_Update

## Overweight

### Top Picks 및 관심종목

\*CP 2026년 7월 1일

NAVER (035420)

BUY | TP 400,000원 | CP 197,400원

# 디지털자산/인터넷

## Open USD 출범과 영향, 원화 스테이블코인 예상

### Open USD, 스테이블코인 시장 게임 체인저 후보

6월 30일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 오픈 스탠다드가 140개 이상의 기업들과 협력하여 올해 하반기 신규 달러 스테이블코인 OUSD(Open USD)를 출시할 계획임을 공개했다. 오픈 스탠다드의 CEO는 스트라이프가 지난 11월 인수한 브리지의 공동 창업자가 맡는다. OUSD의 특징은 발행 및 상환 수수료를 최소화하고 준비금 운용 수익 대부분을 참여 기업, 즉 유통 기업에 환원하는 구조라는 점이다. 비자, 블랙록, 스트라이프, 마스터카드, 클라우드 플레이어, 구글, 쇼피파이, 코인베이스, OKX, 리플 등 다양한 산업의 기업들이 협력한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한화그룹, 두나무, 카카오뱅크 등이 참여했다. 해당 발표와 함께 USDC를 발행하는 서클의 주가는 -17.5% 하락했다. USDC의 가장 강력한 해자는 2가지였다. 바로 1) 미국 제도권 내 최대 발행량, 2) 미국 1위 거래소 코인베이스와의 강한 연대다. 물론 기존 USDC의 생태계와 네트워크를 단기간에 대체하기는 어렵겠지만 이전 PYUSD, SoFiUSD, USDG 대비 강한 경쟁자의 등장임은 분명하다. 서클의 준비금에 대한 수익은 코인베이스만이 쉐어받는 구조지만 OUSD는 발행사의 수익을 최소화하고 유통사가 유통량에 따라 준비금 수익을 나눠가질 수 있는 구조로 파악된다. 서클이 방어를 위해 준비금 수익을 유통사에 추가로 배분하는 구조로 변환한다면 단기 수익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 지니어스 액트의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기업과 거래소들이 채택할 유인이 충분하다. 심지어 서클과 USDC를 함께 만들었던 코인베이스까지 파트너사로 참여했다는 점이 주요하다. 클래리티 액트가 아직 상원에 머물러 있지만 활동성 보상으로의 지급은 허용하는 기초이기에 유통 파트너사들의 광범위한 리워드 제공이 예상된다. OUSD가 향후 USDT와 USDC가 양분하고 있는 시장에 새로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유력한 후보라고 판단한다.

###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조 예상

OUSD의 등장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논의하고 있는 국내에도 큰 시사점을 준다. 국내는 애초에 컨소시엄을 중심으로 한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 이번 오픈 스탠다드 컨소시엄의 OUSD가 보여준 구조는 발행사의 수익 최소화, 유통사의 경쟁력에 따른 준비금 수익 배분이다. 국내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도 이러한 구조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스테이블코인은 결국 수요에 의해 발행량이 결정되기에 발행보다 유통에서의 경쟁력이 중요하며, 유통량에 따라 수익도 결정될 것이다.

인터넷 산업에서는 NAVER를 Top Pick으로 유지한다. 두나무 합병 예정일은 9월 30일이다. 합병은 아직 진행되지 않았지만 두나무에 대한 전통 금융사들의 투자를 통해 발행부터 유통까지의 그림이 그려졌다. 국내 간편결제 1위, 온라인 광고 1위, 온라인 커머스 2위 사업자 NAVER와 국내 디지털자산 1위 거래소 두나무의 경쟁력은 압도적이다. 디지털자산기분법에 대한 논의가 재개되고 있기에 제도화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시점이다. 2025년 6월에는 스테이블코인 사업 채택에 대한 무차별한 상승을 보였지만 이제는 다르다. 유통 경쟁력과 사업 확장성을 갖춘 기업들이 부각 받을 것으로 예상, NAVER의 기업 가치 상승을 전망한다.



Analyst 이준호 junholee95@hanafn.com

# Weekly Retail-Cos. Letter

2026년 화장품 역대 최대 수출 모멘텀 시현 중 | 2026.7.2



Analyst 박종대 forsword@hanafn.com

✓ 6월 화장품 수출 YoY 42% 서프라이즈

## I. 주가 분석과 투자전략

### 1. 6월 화장품 수출 실적 분석: 중국 추세적 YoY (+) 전환 여부 주목

- 6월 화장품 수출은 1.1억 달러(YoY 42%) 증가하는 서프라이즈를 보였다. 미국(YoY 46%)이 강한 리바운드를 보였고, 유럽(9개국 합산, YoY 82%)이 고신장하는 가운데, 중국(YoY 31%)이 YoY (+) 전환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글로벌 소비 트렌드를 추종하기 시작했다는 중국 10대 소비자들의 화장품 소비 패턴 변화를 숫자로 확인해주고 있다. 유럽에서는 러시아(49백만 달러, YoY 73%)가 수출 국가 1위로 올라섰으며, 영국(39백만 달러, YoY 113%), 폴란드(43백만 달러, YoY 45%), 네덜란드(29백만 달러, YoY 289%)가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 품목별로 보면, 역시 기초(5.65억 달러, YoY 43%) 카테고리가 수출을 주도하고 있으며, 색조(75백만 달러, YoY 15%) 수출 증가율을 크게 앞섰다. 마스크팩(50백만 달러, YoY 138%) 수출이 큰 폭 증가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열고 있다. 마스크팩 수출은 하이드로겔 마스크가 주도하고 있다. 바이오던스 히트 이후 글로벌 메이저 리테일러들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제대로 만들 수 있는 ODM 업체가 없어 공급 부족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까다로운 생산 공정과 비용 부담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다. 제닉/코스맥스/코스메카코리아 등 주요 하이드로겔 마스크 생산 ODM 업체들의 실적 개선 가능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2026년 상반기 화장품 수출 증가율은 YoY 26%이다. 향후 중국 화장품 수출 증가율의 추세성 여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 수출의 강한 리바운드 및 유럽의 고신장과 함께 중국 수출의 YoY (+) 전환이 이뤄질 경우 2026년 화장품 수출 증가율은 YoY 25%를 넘을 수 있다.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고, 증가액으로는 역대 최대치이다. 이런 높은 수출 모멘텀이 화장품 산업 계절성을 무너뜨리면서 QoQ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용기/ODM/브랜드 매출이 모두 1Q보다 2Q, 2Q보다 3Q가 커지고 있다. 2026년 화장품 실적과 주가는 '상저하고'가 될 가능성이 크다.



# 완성차 도매판매 동향(2026년 6월)

자동차 실적은 하회할 전망. 로봇과 자율주행 모멘텀의 진행에 맞춰 주가는 상승 | 2026.7.2

투자의견

Overweight

자동차 Analyst 송선재 sunjae.song@hanafn.com

RA 박태웅 taewoongpark@hanafn.com

**Key Insight:** 2분기 완성차 실적은 기존 추정치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 주가는 로봇/자율주행 모멘텀들이 진행되면서 상승동력 찾을 것

- 판매동향**
  - 현대차/기아의 6월 글로벌 도매판매는 33.8만대/29.6만대로 -6%/+10% (YoY)
  - 합산 글로벌 도매판매는 63.4만대(+0.7% (YoY)). 내수/해외 판매가 각각 +4%/+0% (YoY)
  - 합산 도매판매는 지난달 -3%에서 +1%로 반등
- 달성률**
  - 현대차/기아의 2026년 도매판매 목표는 1%/7% 증가한 415.8만대/335.0만대
  - 6월 누적 판매는 각각 196.6만대/163.1만대로 -4.9%/+2.7% (YoY). 계절성을 감안한 달성률은 각각 47.3%/48.7%
  - 이는 과거 3년 평균 달성률 49.2%/49.7% 대비 하회한 수준. 6년 평균 달성률 48.7%/49.2% 대비로도 모두 하회한 수준
- 주가**
  - 2026년 2분기 현대차/기아 판매는 99.1만대/85.2만대로 전년 동기대비 각각 -7%/+5% 변동
  - 글로벌 산업수요 둔화와 국내 생산차질이 부정적 영향을 미친 가운데, 국내 모델 노후화 및 해외 경쟁심화 등도 영향
  - 기아의 경우 EV3/EV4/EV5/PV5 등 전년~금년 상반기 출시된 EV 신차 효과 및 인도 판매의 회복 등이 판매대수 증가에 기여
  - 2분기 실적추정의 주요 변수들을 점검해 보면, (물량) 2분기 판매대수는 하나증권의 기존 추정치 대비 현대차는 6% 하회한 반면, 기아는 1% 상회 (평균환율) 2분기 원/달러 평균환율이 1,503원(+7% (YoY)). 이는 하나증권의 2분기 추정치 내 환율 가정인 1,490원 대비 소폭 상회 (기말환율) 원/달러 2분기말 환율은 1,548원으로 2026년 1분기말 환율 1,510원 대비 38원(+2%) 상승 (가격) 내수 비중 0.7%p 하락. 인센티브 소폭 증가 vs. HEV/EV 판매비중 상승 등 ASP는 소폭 상승 예상
  - 이를 감안한 2분기 실적은 기존 추정치 대비 하회 예상. 추후 지역별 판매대수까지 감안하여 조정할 예정
  - 다만, 하반기 판매대수는 생산차질 해소 및 주요 시장 내 불륨 신차 및 친환경차 신차 효과로 만회될 것으로 예상
  - 2026년 자동차 부문은 '물량 하회/정체 vs. 환율 상승과 관세율 인하 효과'라는 구도가 유지되며 실적 모멘텀은 크지 않을 듯
  - 주가는 로봇과 자율주행을 통한 Valuation 모멘텀의 자극이 필요. 관련 일정들을 점검해 보았을 때, 3분기 중순까지는 변동성 구간
  - 이후 여러 모멘텀들(유니트리/어질리티 상장, 테슬라 옵티머스 3세대 공개, BD의 RMAC 개소 및 생산법인 설립, 공급망 구축, SDV Pace Car 출시 등)이 예정대로 진행되면서 주가는 상승동력을 찾을 것으로 예상

## 현대차: 6월 도매판매 -5.9% (YoY). 내수/해외 -6%/-6%

- 도매판매**
  - 6월 글로벌 도매판매 33.8만대(-5.9% (YoY))
  - 내수 5.8만대(-6% (YoY))/해외 28.0만대(-6% (YoY)). 해외판매 비중 82.8%(+0.1%p)
  - 내수에서 승용 2.0만대(+13%), RV 2.1만대(-10%), 소형 0.7만대(-16%), 대형 0.2만대(-5%), 제네시스 0.8만대(-24%, 비중 13.6%)
  - 내수 승용: 아반떼/쏘나타/아이오닉6/그랜저 -42%/+21%/+15%/+80% (YoY)
  - 내수 RV: 캐스퍼/코나 +23%/+4% (YoY). 투싼/싼타페/팰리세이드/아이오닉9 -26%/-25%/-23%/+72% (YoY)
  - 내수 제네시스: G80/GV70/GV80 -17%/-19%/-38% (YoY)
  - 내수 친환경차: 2.3만대(+5%). 친환경차 비중 39.5%(+4.4%p). EV/HEV 각각 0.7만대/1.6만대(+36%/-6%)
  - 내수 EV 전용 모델: 아이오닉9 1,318대(+72%), 아이오닉6 773대(+15%), 아이오닉5 1,694대(+14%), 넥쏘 459대

## 기아: 6월 도매판매 +9.5% (YoY). 내수/해외 +18%/+8%

- 도매판매**
  - 6월 글로벌 도매판매 29.6만대(+9.5% (YoY))
  - 내수 5.5만대(+18% (YoY))/해외 24.0만대(+8% (YoY)). 해외판매 비중 81.2%(-1.5%p)
  - 내수에서 승용 1.2만대(+4%), RV 3.7만대(+19%), 상용 0.5만대(+70%)
  - 내수 승용: 모닝/레이 +59%/-2%. K5/K8 +10%/-18%
  - 내수 RV: 니로 +87%. 셀토스/스포티지/쏘렌토/카니발 +31%/-3%/+8%/-7%. 타스만 -75%
  - 내수 친환경차: 3.2만대(+50%). 친환경차 비중 59.5%(+12.6%p). EV/HEV 각각 1.2만대/2.0만대(+125%/+26%)
  - 내수 EV 전용 모델: EV3 2,838대(+51%), EV4 1,019대(-5%), EV5 3,192대, EV6 820대(+13%), EV9 392대(+247%), PV5 2,349대

# 단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증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삼성전자 (005930.KS)	6/29	339,500	314,500	-7.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I 수요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DDR4 가격상승과 더불어 NAND 업황 개선 맞물려</li> <li>DDR 및 NAND 가격 상승은 레거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게 긍정적</li> </ul>
SK하이닉스 (000660.KS)	6/29	2,673,000	2,560,000	-4.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Q26 Preview 매출액 87.1조원(YoY +292.0%), 영업이익 67.6조원(YoY +638.0%) 전망</li> <li>빅테크 중심의 HBM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대규모 CAPEX가 동반되며 HBM 수혜 전망</li> </ul>
KB금융 (105560.KS)	6/29	149,300	158,500	6.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분기 추정 순익 1.97조원으로 2조원에 육박해 지주사 설립 이후 분기 최대 순익 예상</li> <li>홍콩 ELS 과징금 이슈 해소에 주주환원 확대 및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li> </ul>
한화오션 (042660.KS)	6/29	98,000	103,300	5.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저가 수주물량 해소와 고가 선박 매출 인식 본격화로 상선 부문 수익성 개선 지속 전망</li> <li>캐나다 CPSP-국내 KDDX 등 특수선 수주와 해양플랜트 발주 확대 기대감</li> </ul>
삼양식품 (003230.KS)	6/29	1,111,000	1,162,000	4.5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주-중국-유럽 중심의 해외 매출 고성장과 밀양2공장 가동을 상승으로 실적 성장 기대</li> <li>중국 신공장 가동 및 추가 생산시설 검토로 해외 비중 확대와 단기 실적 모멘텀 부각</li> </ul>
대덕전자 (353200.KS)	6/29	133,200	154,400	15.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I 서버용 MLB와 메모리 패키지 기판 수요 증가로 고부가 반도체 기판 매출 확대 기대</li> <li>FC-BGA 가동을 회복과 자율주행·AI향 신규 수요 진입으로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li> </ul>
세방전지 (004490.KS)	6/29	49,250	54,100	9.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회사 세방리튬배터리를 통한 북미 전력망용 ESS 모듈/팩 사업 진출</li> <li>P/E 6배 수준의 저평가와 현재 주가 기준 4% 후반의 배당수익률 매력 부각</li> </ul>
리가캠바이오 (141080.KQ)	6/29	142,900	150,000	4.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파트너들의 임상개발 진전 및 자체 보유 파이프라인의 임상진입, 기술수출 기대</li> <li>2027년까지 신약 ADC 파이프라인에서 약 10개의 IND 신청 예정</li> </ul>
파마리서치 (214450.KQ)	6/29	324,000	366,500	13.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국 세프라-중국 오프라인 채널 확대, 유럽-중동 의료기기 진출로 성장 모멘텀 부각</li> <li>리뷰란 브랜드 가치 기반으로 내수 의료기기 수요 견조</li> </ul>
코스메카코리아 (241710.KQ)	6/29	66,100	80,600	21.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객사 성장 지속으로 화장품 ODM 수주 포트폴리오 다변화 기대</li> <li>잉글우드랩 지분을 확대에 따른 연결·지배순이익 개선 효과로 실적 가시성 부각</li> </ul>

## 단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주간(This Week)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7.11%	+8.37%p	+81.33%	+5.67%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주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5%선 적용

# 증장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증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삼성전자 (005930.KS)	7/1	334,000	314,500	-5.8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I 수요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DDR4 가격상승과 더불어 NAND 업황 개선 맞물려</li> <li>DDR 및 NAND 가격 상승은 레거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게 긍정적</li> </ul>
SK하이닉스 (000660.KS)	7/1	2,650,000	2,560,000	-3.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Q26 Preview 매출액 87.1조원(YoY +292.0%), 영업이익 67.6조원(YoY +638.0%) 전망</li> <li>빅테크 중심의 HBM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대규모 CAPEX가 동반되며 HBM 수혜 전망</li> </ul>
삼성전기 (009220.KS)	7/1	2,184,000	2,205,000	0.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I 서버 랙 전력밀도 상승과 800VDC 전력 인프라 도입으로 서버용 MLCC 탑재량 증가</li> <li>타이트한 공급과 가격 조건 개선이 하반기 실적 레버리지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li> </ul>
삼성생명 (032830.KS)	7/1	401,000	387,000	-3.4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강보험 판매 확대와 신계약 CSM 증가로 보험 본업의 이익 체력 개선</li> <li>삼성전자 배당수익 및 자회사 연결 손익 증가로 투자손익 크게 개선</li> </ul>
효성중공업 (298040.KS)	7/1	3,438,000	3,718,000	8.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국향 초고압변압기-리액터 수주 확대로 전력 인프라 투자 확대 수혜 부각</li> <li>2분기 미국향 고마진 차단기 물량 매출 인식과 관세 환급 가능성으로 수익성 회복 기대</li> </ul>
삼양식품 (003230.KS)	7/1	1,119,000	1,162,000	3.8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주-중국-유럽 중심의 해외 매출 고성장과 밀양2공장 가동을 상승으로 실적 성장 기대</li> <li>중국 신공장 가동 및 추가 생산시설 검토로 해외 비중 확대와 단기 실적 모멘텀 부각</li> </ul>
신세계 (004170.KS)	7/1	755,000	776,000	2.7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백화점 본업의 외국인 매출 확대와 리뉴얼-팝업 효과로 매출 및 영업이익 개선 흐름 지속</li> <li>면세점 흑자 전환과 신세계인테리어서날 등 자회사 수익성 회복으로 실적 개선 가시성 상승</li> </ul>
한국콜마 (161890.KS)	7/1	99,500	106,800	7.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디 브랜드의 글로벌 수출 확대, 선케어-스킨케어 주문 증가로 ODM 본업 성장성 강화</li> <li>국내 법인 고성장과 고마진 제품 믹스 개선을 바탕으로 실적 개선 기대</li> </ul>
리가켄바이오 (141080.KQ)	7/1	149,900	150,000	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파트너들의 임상개발 진전 및 자체 보유 파이프라인의 임상진입, 기술수출 기대</li> <li>2027년까지 신약 ADC 파이프라인에서 약 10개의 IND 신청 예정</li> </ul>
브이엠 (089970.KQ)	7/1	109,300	119,700	9.5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객사 M15x 신규 투자와 1c나노 전환 투자 수혜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타나며 호실적 기대</li> <li>2027년 M15x 잔여 공간-용인 1공장 투자 수혜까지 감안 시 증장기 실적 상향 여력 부각</li> </ul>

## 증장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분기(3Q)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1.99%	+4.03%p	+59.21%	-16.47%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분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증가기준 -15%선 적용

# ETF 투자유망종목

해외주식분석실



## 국내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증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KODEX A반도체 (395160)	2026.02.27	29,560	57,020	9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 양산 본격화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및 한미반도체 등 국내 AI 반도체 밸류체인 핵심 기업에 집중 투자</li> <li>온디바이스 AI 확산과 AI 서버 수요 폭증으로 인한 메모리 수급 불균형 속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실적 개선 및 가치 재평가 기대</li> </ul>
WON 초대형IB &금융지주 (0154F0.KS)	2026.02.24	15,160	12,300	-18.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및 밸류업 프로그램의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대형 증권사와 주요 금융지주 등 핵심 금융주에 집중 투자하는 패시브 ETF</li> <li>초대형 IB의 구조적 성장성과 금융지주의 안정적인 배당 매력을 동시에 추구. 미래에셋증권, 한국금융지주, KB금융, 신한지주 등 국내 금융 섹터를 대표하는 우량 종목들로 구성</li> </ul>
에셋플러스 코리아 대장장이액티브 (442090.KS)	2026.02.24	25,365	35,305	3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방 산업의 경쟁 심화 속에서 부품, 장비, 소재 등 후방 산업(소부장) 내 독점적 지위를 가진 대장장이 기업들에 집중 투자하는 액티브 ETF</li> <li>반도체, 방산, 조선 등 한국의 핵심 수출 산업 밸류체인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한 강소기업들을 선별 편입. 국내 주요 수출주들의 실적 개선과 맞물려 시장 지수 대비 추가적인 수익 창출 기대</li> </ul>
PLUS 글로벌방산 (496770.KS)	2025.03.04	13,000	17,960	3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국과 유럽의 주요 방산기업들을 편입하는 종목. 독일 방산업체 라인메탈디펜스,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스웨덴의 사브 등이 포트폴리오에 포함</li> <li>트럼프 행정부의 NATO 방위비 압박으로 주요국들의 국방비가 증액되는 추세.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구조적 수혜를 누릴 것으로 기대</li> </ul>

## Global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증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SMH (글로벌 반도체)	2025.11.24	339.12	655.89	9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형주 비중이 높은 대표 글로벌 반도체 ETF. 매출의 50%가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생산 분야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li> <li>엔비디아의 실적과 가이던스를 통해 AI 산업의 꾸준한 성장 모멘텀 확인. SMH는 NVIDIA와 TSMC가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 Capex 경쟁 지속 가운데 소비된 AI 시장 확장, 신제품 교체 기반의 견고한 수요 기대 유효</li> </ul>
DRAM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2026.6.22	80.72	73.85	-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I 혁명 및 대규모 데이터 처리에 필수적인 컴퓨터 메모리 및 스토리지 밸류체인 관련 글로벌 기업들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한 순수 메모리 테마 ETF</li> <li>광범위한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기존 ETF와 달리, HBM(고대역폭메모리) 및 차세대 DRAM 시장을 선도하는 핵심 제조사에만 집중 투자하여 차별화된 고성능 모멘텀 수혜 기대</li> </ul>
AIRR (미국 중소형 산업재)	2026.6.22	133.25	133.25	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국 내 매출 비중이 높은(75% 이상) 중소형 제조업 및 산업재 관련 기업들로 구성 되어 실질적인 미국 제조업 부흥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누릴 수 있는 ETF</li> <li>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리쇼어링(제조업 본국 회귀) 현상 가속화와 관세 구조 변화 등 트럼프 정책의 지속성 하에서 실질적인 인프라 건설, 기계, 엔지니어링 밸류체인 수혜 기대</li> </ul>
SPHQ (미국 대형 퀄리티 주식)	2026.3.23	75.80	90.10	18.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익성(ROE), 이익의 질(미결제영업자산 변동), 재무 건전성(레버리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S&amp;P500 내 최상위 우량주 100개를 선별해 투자</li> <li>매크로 불확실성 및 실적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서 탄탄한 펀더멘털을 보유한 기업에 집중해 지수 대비 견고한 하방 경직성과 장기적인 초과 수익 추구</li> </ul>

주: 기준가는 편입일 당일의 종가, 전일증가는 한국 시장 3시 30분 기준.

# Calendar

글로벌투자분석실

SUN	MON	TUE	WED	THU	FRI	SAT
6.28	6.29	6.30	7.1	7.2	7.3	7.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 5월 광공업생산 (-0.9%, 이전치 1.5%)</li> <li>중국 6월 제조업 PMI (50.3, 이전치 50)</li> <li>중국 6월 서비스업 PMI (50.2, 이전치 50.1)</li> <li>일본 5월 실업률 (2.5%, 이전치 2.5%)</li> <li>미국 6월 CB 소비자기대 (E 94.4, 이전치 93.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 6월 수출 (E 60.9%, 이전치 53.2%)</li> <li>한국 6월 수입 (E 24.5%, 이전치 20.8%)</li> <li>중국 6월 레이팅독 제조업 PMI (E 52, 이전치 51.8)</li> <li>미국 6월 ISM 제조업지수 (E 53.9, 이전치 54.0)</li> <li>유로권 6월 CPI (E 3.0%, 이전치 3.2%)</li> <li>유로권 6월 근원 CPI (E 2.5%, 이전치 2.6%)</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 6월 CPI (E 3.2%, 이전치 3.1%)</li> <li>미국 6월 실업률 (E 4.3%, 이전치 4.3%)</li> <li>유로권 5월 실업률 (E 6.3%, 이전치 6.3%)</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국 6월 레이팅독 서비스업 PMI (E 53.1, 이전치 54.4)</li> </ul>	
7.5	7.6	7.7	7.7	7.8	7.9	7.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국 6월 ISM 서비스업 지수 (E --, 이전치 51.3)</li> <li>유로권 5월 소매판매 (E --, 이전치 1.0%)</li> <li>유로권 5월 PPI (E --, 이전치 4.9%)</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국 5월 수출 (E --, 이전치 2.6%)</li> <li>미국 5월 수입 (E --, 이전치 2.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본 5월 선행지수 (E --, 이전치 116.1)</li> <li>일본 5월 동행지수 (E --, 이전치 118.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국 6월 PPI (E --, 이전치 3.9%)</li> <li>중국 6월 CPI (E --, 이전치 1.2%)</li> <li>일본 6월 공작기계 수출 (E --, 이전치 37.5%)</li> <li>미국 6월 기준주택매매 (E --, 이전치 3.2%)</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본 6월 PPI (E --, 이전치 6.3%)</li> </ul>

주: 1) 괄호 안은 예상치(E), 전월 순, 한국시간 기준 (\*E)는 당사 추정치. 2) 유로권, 북미는 전월대비(PCE 디플레이터는 전년동월대비), 아시아, 신흥국은 전년동월대비 기준, 3) P(속보치), A(잠정치), F(확정치)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